

설득을 위한 글쓰기의 전략

- 이규태의 글쓰기를 한 사례로

정 정 순 (청주교대)

<차례>

1. 머릿글
2. 왜 이규태인가?
3. 이규태 글쓰기의 특징
4. 이규태의 글쓰기 전략
5. 맺음글

1. 머릿글

대학에 갓 들어와 중고등학교 때 읽지 못한 소설들을 읽으면서 가졌던 소박한 의문들 중의 하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왜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을까 하는 것이었다. 최인훈의 소설 등 흔히 말하는 사변적인 관념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 이외의, 당시 신세대 작가로 분류되던 작가군들의 작품을 읽을 때도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철학에서부터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심지어 외국의 풍물들까지 아는 것들이 많아서 평범한 독자들을 주눅들게 만들기에 족했던 듯하다. 동시에 작가들은 실제로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도 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들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실제로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를 반복했음을 알기 전에는, 글을 쓰기 위해 얼마만큼의 공을 들여야 하는지 쉽게 깨닫지 못했던 듯하다. 비단 소설뿐이겠는가. 웬만큼

글을 잘 쓴다는 사람의 서가는 항상 빼곡히 꽂혀 있는 책들이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비록 개인의 서가는 아니더라도 서가 못지 않은, 엄청난 양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터넷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처럼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걸까? 대학생들에게 쓰기 과제를 내면 심증판구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한다. 오래 '서핑'을 한 친구는 조금은 나은, 그러나 대충 뒤적거린 학생들은 고만고만한 심지어 다른 학생들과 상당히 겹치는 내용을 포함한 글들을 과제물이라고 제출한다. 인터넷이 인간의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다소 선정적인(?) 내용의 저서가 나올 법도 하다.¹⁾

이러한 상반된 현상은 흔히 말하는 글쓰기의 다섯 단계 즉 '주제 선정-자료 수집-개요 작성-쓰기-퇴고'에서 두 번째 단계 즉 자료 수집의 단계를 어떻게 거치느냐가 글쓰기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자료 수집이 좋은 글을 쓸 수 있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에게 잘 쓴 글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학생들의 과제물의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경우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에게 절실하지 않은 문제를 쓸거리로 선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자신의 목소리의 부재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에 관해 쓸 것인가'라는 점이다. 소설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필자들은 '무엇'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자료 수집을 시작할 수 있다. 대학 교양국어에서의 학생들 보고서 혹은 발표의 단골 주제가 동성애, 낙태, 안락사와 표절 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기가 바뀌고 학생들이 새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이다.²⁾ 왜 그럴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자신이 상대적

1) 데이비드 쟁크, 정태석 외 역, 『데이터 스모그』, 민음사, 2000.

2) 1999년 서울 H대, 2000년 대전 K대, 청주 C대 1학년 학생들에게 주제를 정

으로 잘 안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쓸거리로 삼으라고 강조해도 학생들은 쓸거리를 찾고 내용을 조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 글은 제도적으로 부과되는 이러한 종류의 글쓰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당히 경직되게 반응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학생들 대부분이 내용 선정, 자료 수집, 내용 조직의 방법 등 글쓰기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 및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의 방법 등을 동원한 다방면에서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만 명칼럼니스트인 ‘이규태’라는 거울을 통해 글쓰기의 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규태의 글들을 통해, 이규태가 쓸거리를 어떻게 정하고, 정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잘 쓴’ 글로 귀결되는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에서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부분의 해답이라도 얻고자 한다.

2. 왜 이규태인가?

글쓰기의 범주를 크게 ‘개인적인 글쓰기’와 ‘사회적인 글쓰기’로 양대 별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자기 실현으로서의 글쓰기’와 ‘필요에 의한 글쓰기’라는 틀³⁾을 의미 전달이 보다 명료하다고 판단되는 위의 두 틀로 재명명하였다. 필요에 의해 글을 쓴다는 말이 암시하듯, 후자의 경우는

해주지 않고 과제물(혹은 발표문)을 제출하게 한 결과, 주제의 중복을 확인하였다.

- 3) 문영진, 『한국 근대산문의 읽기와 글쓰기』, 소명출판, 2000, 24면. 현행 쓰기 교육에서 자기 실현으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의 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논의의 일부분으로, 글쓰기의 영역 재편 혹은 범주 재설정을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갖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외적인 목적을 지닌 글쓰기가 자기 실현으로서의 글쓰기도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명명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사회적인 글쓰기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글의 경우 그것을 ‘자신이 쓴 글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글쓰기’의 의미로 보기로 한다.

정규 학교 교육의 쓰기 시간에 다루어지는 네 가지 내용 영역(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을 볼 때, 교육 장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글쓰기에 보다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글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글쓰기의 전형인 ‘일기 쓰기’는 초등교육 단계에서만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며, 중등·고등 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서 표현의 글쓰기는 사회적 글쓰기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나머지 다른 영역의 글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계상의 고려 혹은 영역상의 안배는 사회적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⁴⁾ 이는 국어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⁵⁾ 중의 하나인 ‘생활인으로서의 필요adult needs’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 생활에서의 언어적 요구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국어의 ‘도구성’을 염두에 둘 때 범교과적 ‘cross-curricular’ 관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렇게 볼 때 이규태의 글쓰기는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글은 그가 19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선일보의 ‘이규태 코너’를 통해 써 온 칼럼들 중 일부이다.

4) 이것은 개인적인 글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글쓰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 할 이형빈의 『교백적 글쓰기의 표현 방식 연구』(1999,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이 영역의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5) 영국 교육과정의 그것을 참조한 것으로, 나머지 넷은 ‘personal growth’, ‘cross-curricular’, ‘cultural heritage’, ‘cultural analysis’이다.(김대행, 『영국의 문학교육』, 『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7 참조)

총 연재 5천 회를 상회하는 그의 글은 사회적 글쓰기의 중요한 한 유형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국어교육 목표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칼럼은 많은 신문과 잡지들이 두고 있는 고정 단평란에 연재되거나 기고된 글들을 통칭한다. 사실이 정치, 경제, 사회에 속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강한 논조 하에 고답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면, 칼럼은 상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훨씬 자유롭고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칼럼도 사실과 마찬가지로 신문이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글이므로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사안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며, 이러한 자신의 판단을 독자들이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는 글쓰기라는 점에서 사회적 글쓰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규태 코너를 즐겨 읽는 독자는 많다. 그의 글 때문에 조선일보를 본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이는 그의 글이 사회적 글쓰기로서 성공적인 사례에 속함을 입증한다. 사회 생활인으로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면에서나, 효과적인 언어 운용의 면에서나 그의 글이 쓰기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연구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3. 이규태 글쓰기의 특징

이규태의 글은 일반적인 장르 명칭으로 볼 때 칼럼에 속한다. 그런데 쓰기의 사회적 목적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 장르를 설명, 설득, 서사, 보고 등으로 나누고 있는 영국과 호주, 북미 중심의 작문 연구 이론에서 볼 경우엔 ‘설득’이라는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형식·구조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춘 장르 분류를 따를 경우 끝없이 넘쳐나는 장르들을 교육 현장에서 다 포괄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장르를 사회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목적에 따라 텍스트들이 취하는 다양

한 형식⁶⁾으로 볼 경우 쓰기 교육의 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⁷⁾

이 글에서도 이규태의 글을 칼럼이라는 형식보다 설득이라는 장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것이 '설득을 위한 글쓰기'라는 교육과정상의 내용 범주를 고려할 때에도 더 유용하다.

설득을 위한 글의 경우 설득의 방법이 중요하다. 동일한 주장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설득이 흔히 주장과 논거로 구성된다고 본다면 결국 논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가 설득의 관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이규태의 글에서는 논거와 주장의 관계가 여타 설득적인 글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는데, 구체적 논의를 위해 『놈(者)考』와 『招魂葬』 두 편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이규태 글의 특징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 보인다고 판단되는 두 편을 선정하였다.

6) Bill Cope and Mary Kalantzis ed., *The Powers of Literacy : A Genre Approach to Teaching Writing*, The Falmer Press, 1993, 1~12면 참조.

7) 쓰기 교육과 이러한 '장르' 개념의 관계를 모색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최인자, 『장르'적 시각에서 본 글쓰기 교육』, 『국어표현·이해교육』(박갑수 외), 집문당, 2000.

최인자, 『장르의 역동성과 쓰기 교육의 방향성』, 『문학교육학』 2000 여름 제5호.

박태호,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 학습 원리 연구』, 교원대 박사학위논문, 2000.

졸고, 『장르 개념을 활용한 쓰기 교육』, 이상익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가) 놈(者) 考

단락1 : 이 세상 모든 나라에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알잡아 부를 때 쓰는 자기나름의 말이 있다.

우리 나라와 아랍 사람 - 개

단락2 : 개가 욕말인 다른 나라의 경우 - 독일, 네덜란드, 베트남, 러시아

단락3 : 스페인-암 산양, 프랑스-개구리, 일본-마록(馬鹿), 중국-거북 (거북모양택시 승차거부운동)

단락4 : 본 뜻이 나쁜 말이 아닌데도 욕말이 된 경우도 많다.

유태인-동그라미

단락5 : 미국-양키(yankee), 가이(guy), 우리말-놈

단락6 : 놈이 매도의 대명사가 됨

단락7 : 놈의 한문 표기가 자(者). 한국인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호칭

단락8 : 우리 법전에 온통 사람을 이 놈 자(者)로 표기.

단락9 : 백성을 알보는 관료주의의 일제(日帝)가 만든 법률용어를 고스란히 답습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법률 용어 개정을 하고 있다던데, 법전에서 이 욕말 같기도 하고 알보는 놈 '자(者)'를 씻어내는 작업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

(나) 招魂葬

단락1 : '리타나이'라는 슈베르트의 가곡-초혼에 관한 민속 합창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 초혼장 습속이 여러 문화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단락2 : 우리 선조들은 전장에 나가기 전날 밤 등을 바늘로 쪼아 '충'과 '용'을 자자(刺字)하는 풍습이 있었다.

단락3 : 쪼을 때 나는 피를 저고리에 묻혀 간직.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초혼장.

단락4 : 하동군 옥종면 삼장 마을 '치마무덤'(조지서의 한강에 흘러내린 피로 초혼장)

단락5 : 옷, 갓, 신발로 무덤을 만드는 사례

단락6 : 고려말 김주-조복과 신

유물이 없으면 고인이 쓴 시나, 손때 묻은 책, 신주를 담은 그릇(성삼문) 등을 물었다.

단락7 : 임진왜란 때 이대원-유물이 없어 친필의 시로 시총(詩塚)

병자호란 때 심양에 납치된 한국인-옷

단락8 : 이렇게 이역만리에서도 입었던 옷이라도 보내와 영혼만이라도

혈육 가까이 와 있게 했는데, 한핏줄 한 땅덩이 안인데도 생사까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분단선상에서 방황하고 있음인가.

위 글들의 공통점은 내용 전개 3/4 이상을 지나서도 필자가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가) 글의 경우는 마지막 두 단락에서, (나) 글의 경우는 글을 맺는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가 의도했던 메시지를 파악해 낼 수 있다. 설득을 위한 글이 대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 맞는 내용 조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것이다.⁸⁾

이규태가 쓸거리를 찾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다. 그는 우선 신문의 칼럼란이라는 고정지면에 매일 글을 써야 한다는 직업적 당위에서 쓸거리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날그날의 사건사고 및 사소한 뉴스거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재를 찾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다음날은 전날 행사장에서 날아 오르는 비둘기떼를 본 데 착안하여 비둘기의 귀소본능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쓸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체 글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일종의 주제 선정의 과정과 이러한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련의 자료들을 찾는 과정 둘다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글이 상이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규태의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학생들의 논술문이 서론, 본론, 결론의 삼단 구성과 그 각각의 분량 배정에 있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들의 논술문은 종종 공허하고 힘이 없음을 여러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 글의 경우를 보면 법률 용어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에서 쓸거리를 찾았다. 주제는 ‘법률 용어 개정 작업을 제대로 하자’라는 일반 명제로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로 글을 써야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단계를 설정하고 내용을 조직해 나갈까? 일반적인 논술문의 경우 기대되는 내용은 다음과 유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서론 : 현재 법률 용어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화제 제시)

본론 : 현재 법률 용어의 문제점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문제점 지적)

- 어려운 한자어
- 일제식 표현
- 법률 전문용어 등등

결론 :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 용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자.(해결 방향 제시)

(나) 글의 경우도 비슷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정도로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글에는 이산가족의 한과 아픔이 초래된 역사적 원인도, 해결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돌아보자’는 여느 글의 주장보다도 그 울림이 더 크다. 이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 선정과 조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왜 그의 글이 ‘식상하지 않고’ 울림이 큰가를 밝히는 데 있게 될 것이다.

현상적으로 쉽게 파악되는 이규태 글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구성상으로는 2단 구성을 취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을 보인다는 점
2.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인 암시에서만 그친

다는 점

3.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사례에서만 찾고 있다는 점
4. 그리고 그 사례 제시는 동서고금의 숨겨진 일화와 사실(史實)의 발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이들은 그의 대부분의 칼럼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실제 이규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글에 소개되는 동서고금의 술한 이야기들을 그가 어떻게 알고 쓰는가에 관한 독자의 궁금증이다.⁹⁾ ‘글 잘 쓰는’ 이규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또한 분명해 보인다.

4. 이규태의 글쓰기 전략

현행 작문 교육에서는 전략 중심의 쓰기 지도 모형을 따르고 있다. 문제 해결 과정 중심의 쓰기 지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모형은, 글쓰기의 단계를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보인다. 여기서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계획 혹은 방법을 말한다.¹⁰⁾

각각의 단계에서의 전략들을 이 글에서 모두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

9) 실제 이규태는 20평 남짓한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만의 자료 관리 방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는 매월 책 구입비에만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쓴다고 하며, 이렇게 구한 <본초강목>, <황성신문>, <육당전집> 등 상당한 양의 고문헌과 사료들은 페이지가 곳곳에 접혀진 채 혹은 밑줄이 쳐진 채로 그의 책장에 꽂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쓰기 위해 오색분류법이라는 그만의 방법을 활용한다고 한다.(http://www.jeonbukilbo.co.kr/GIHACK/man50/man_18b.htm 참조)

10)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사, 1999, 663면.

만, 쓰기 지도 모형에서 전략이라는 개념이 어떤 층위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계획하기 단계의 경우엔 두 가지의 전략이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작문 상황 분석하기’이고 다른 하나는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조도 작성하기’이다.¹¹⁾ 이러한 각각의 단계와 그 단계에서 적용되는 전략은 7차 교육과정 작문 영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¹²⁾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작문 상황 분석이라는 것이 ‘작문 과제, 예상 독자, 목적 등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글의 중심 내용을 토대로 개략적인 내용 구조도를 작성한다.’라고 이어져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교재의 차원 그리고 교수 활동의 차원에서 이들 전략이 얼마나 말 그대로의 전략으로서 실제적인 효용성을 지닐 수 있는지는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쓰기 활동에서도 전략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쓰기 결과만이 아닌, 쓰기 ‘과정’ 자체에 교육적인 관여가 개입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는 쉽게 여겨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쓰기 ‘방법’ 혹은 전략이 지나치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데 있다. 개별적인 글쓰기 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쓰기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혹은 설득을 위한 글쓰기 등에서의 쓰기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실제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앞에서 밝혔듯 이규태의 글쓰기는 설득을 위한 글쓰기의 범주에서 파악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이규태의 글쓰기의 전략을 두 가지로 보았다. 이는 설득을 위한 글쓰기 전반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기보다

11) 박영목·한철우·윤희원,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1999, 240~247면 참조.

12)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국어과 교육과정』, 139면~140면 참조.

는 이규태가 처한 글쓰기 상황에 바탕한 전략¹³⁾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때의 글쓰기 상황이란 신문이라는 공적 매체를 통한,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글들이 한 지면에 동시에 제시되어 있는 신문의 경우 독자의 시선을 글이 끝나는 지점까지 고정시켜 두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략은 끝까지 읽게 하기와 울림을 극대화하기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전략은 각각 텍스트 차원에서 이야기 제시와 의미의 의도적 지연 그리고 생략과 간접화로 드러난다.

1) 이야기 제시와 의미의 의도적 지연을 통한 끝까지 읽게 하기

문자 언어로 이루어지는 설득 행위가 구두 언어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문자 언어로 이루어지는 설득 행위는 설득자가 아닌 피설독자에 의해 언제든지 그 설득 행위가 중단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독자는 글을 읽어 내려 가다가 언제든지 자신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 다른 문제로 관심을 옮길 수 있다.¹⁴⁾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일 경우 이 문제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독자의 반응이 없는 글이란 그 내용을 떠나 이미 실패한 글이기 때문이다.

13) 이를 조건적 지식 혹은 상황적 지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Jones, B.F. & Palincsar, A.S. & Carr, E.G., *Strategic Teaching and Learning*, ASCD, 1987, 10면, 염은열(1999)에서 재인용) 이 경우 여러 지식의 층위와 전략, 그리고 상위 인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전략과 절차적 지식, 절차적 지식과 상황적 지식, 그리고 상황적 지식과 상위 인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 글에서 논하는 것은 역량 밖의 일이며, 다만 구체적인 글쓰기 상황에 바탕한 글쓰기의 방향 제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따르자면 '원리'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14) Winston L. Brembeck, William S. Howell, *Persuasion: A Means of Social Influence(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76, p.39. 설득의 전달매체들(vehicles) 중 하나인 인쇄 매체(printed media)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규태의 글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글을 끝까지 읽어 나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¹⁵⁾ 무엇이 독자로 하여금 그의 글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야기’¹⁶⁾의 활용과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적 지연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의 글은 소박하게 보아, 동서고금의 이야기들 여럿의 나열과 주제에 대한 암시가 대략 5 : 1 정도의 비율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라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항상 넘쳐난다. 그것은 어제를 살다간 사람들과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다. 그의 글이 대부분의 다른 칼럼들과는 달리 시의성에 구속되지 않는 힘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 제공한다. 타자의 삶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인류 공통의 욕망일 것이다. 그의 ‘이야기’ 찾기 작업이 상당한 공을 들여 이루어지는 것은 그가 이야기의 이러한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¹⁷⁾

15) 조선일보를 즐겨보진 않지만 가끔 이 신문을 접할 기회가 생길 때엔 그의 글을 챙겨 읽게 된다. 물론 재미가 있어서이다. 개별적으로 물어본 고등학생들의 경우도 이규태의 글은 재미있어서 읽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16) 이규태의 글 한 편 한 편에는 여러 이야기가 동일한 무게 비중을 지니고 병렬되어 있다. 이야기라는 말에는 인공적으로 다듬어지기 이전의 삶의 원초성이 그대로 묻어 있는 낱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으므로, ‘서사’보다 ‘이야기’라는 개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국어교육학사전에 의하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체험을 객관화하고 남과 체험을 교류하며, 미래의 이상을 구체화하는 등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정신 과정의 하나이다.(국어교육연구소편, 『국어교육학사전』, 621면)

17) 1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규태 코너를 써온 그는 1회 분량을 쓰기 위해 하루를 꼬박 투자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정해 놓은 테마에 알맞는 자료를 찾아가 가방에 넣어 둔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테니스를 하고 9시께 출근, 글을 쓴다. 오후에는 다음 날 테마를

여기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글이라 하더라도 그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즉 글을 구체적으로 채워 나갈 쓸거리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문제가 글의 질적 차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에 부합하는 동서고금의 이야기의 수집과 선별의 과정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글쓰기의 전략인 셈이다.

또한 그의 글에선 주제문이라고 할 만한 문장이 글의 앞부분에서 제시되는 적이 거의 없다. 사실은 그의 글 대부분이 거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에 가서야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의 힘을 덜어 ‘그러니까 이리이러해야 함직하지 않은가’ 정도의 메시지가 살아 보이는 것이다. 서구의 한 연구에서는 수용자들의 관심도가 낮을 경우엔 중요한 내용을 앞부분에서 제시하는 ‘역(逆)클라이맥스형’이, 수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을 경우엔 ‘클라이맥스형’ 즉 중요한 내용을 뒷부분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적고 있다.¹⁸⁾ 또한 수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내용일 경우에는 결론적인 주장을 나중에 제시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이들 연구에 기대어 볼 때, 이규태의 글의 이러한 2단 구성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 이야기들을 제시해 보임으로써 독자들의 이야기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글쓰기와는 다른 형태의 2단 구성이 그의 글처럼 독자들의 반응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상하며 퇴근 후에는 휴식을 위해 일절 책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http://www.jeonbukilbo.co.kr/GIHACK/man50/man_18b.htm)

18) Erwin P. Bettinghaus, *Persuasive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pp.152~153. 차배근, 『설득커뮤니케이션이론』, 245면에서 재인용.

2) 생략과 간접화를 통한 울림의 극대화

이규태의 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글들에서는 접속사가 거의 쓰이지 않으며, 앞의 말을 되받아 상세화하거나 강조할 때 자주 쓰게 되는 종결 표현 ‘것이다’도 찾아 보기 힘들다. 이어령도 ‘상(上)목수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고 접속사의 잦은 사용을 경계했고, 미숙한 필자들이 ‘것이다’를 많이 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 알아주는(?) 두 필자의 흥미있는 일치이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문장과 문장간, 단락과 단락간의 연결에 의도적인 공백을 두고, 앞에서 언급한 내용 혹은 제시한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함과 동시에 읽기 과정에 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제시해 보인 두 글의 경우도 두 편을 합쳐야 ‘한데’라는 접속어가 하나가 발견된다.¹⁹⁾ 앞의 내용과의 연결을 드러내 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고 할 ‘이렇게’라는 부사어 또한 ‘초혼장’에서만 두 번 발견될 따름이다. ‘것이다’도 두 편을 합쳐 한 번 보일 뿐이며, 이조차도 앞의 내용에 대한 재진술 혹은 부연의 기능이 아니다.²⁰⁾

단락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례들간의 연결에 설명을 위한 일반적 진술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는 그의 글이 ‘이야기들’의 의도적 제시에 그 전략이 있다고 한 앞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이야기들 사이에 필요한 설명적 진술들을 생략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의 폭을 극대화하고자 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접속사가 없는 것 또한 이러한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마무리에서도 확인된다. 필자의 주제 의식은 마지막 문장에서도 일반적인 당위 명제로 처리되는 법이 없다. ‘~인 듯싶다.’,

19) “한데 우리 법전에 보면 온통 사람을 이 놈 자(者)로 표기하고 있어 불쾌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 “이렇게 낚이나마 가족 가까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초혼장의 풍습 때문에 옛 병사들은 용감히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해지기만 한다.’(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어울려), ‘~했으면 한다.’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사회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행동 촉구를 개인적인 감정과 바람의 차원에 국한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이 마지막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장의 직접 제시가 아닌,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이다.

5. 맺음글

사실 이규태의 글들이 항상 좋은 평가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의 글들은 대체적으로 알튀세르식으로 말해 독자들을 민족적인 주체로 호명하는 데에 탁월하며, 심지어 상당히 보수적인 면까지 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는 사회 문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실천적 지식인이라기보다 인간 삶의 다방면에 두루 관심을 갖고, 많은 방면에 지식을 두루 축적하고 있는 인간학자 같은 느낌을 준다. 그의 칼럼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정치 사회적 쟁점에 관한 한 대체적으로 둔감하거나 혹은 너그럽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의 글의 이러한 정치적인 면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것은 또 다른 교육 층위²¹⁾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 글쓰기 교육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규태의 글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전략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그의 글이 설득적 글쓰기의 전형적인 모범이어서 그의 설득 전략이 설득적 글쓰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그의 글쓰기는 다양한 설득적 글쓰기의 한 종류이다. 글쓰기 장면에서 적용 가능한 글쓰기 전략을 구체적인 글쓰기의 사례 속에서 규명해 보려 한 데에 이 글의 의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설득의

21) 비판적 읽기라는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할 경우 이규태의 글들에 대한 담론 분석이 보다 정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전략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규태의 설득의 전략은 토론의 장에서는 거의 무용할 수도 있다.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통찰, 이에 대한 일반화되고 정리된 표현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구상까지 요구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전략이 무의미함은 당연하다. 소통의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설득 전략이 활용매체(vehicle)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두루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다.

각각의 사회적 목적에 맞는 글쓰기 영역들에 활용될 수 있는 글쓰기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이 공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설득을 위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기타 글쓰기의 실체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쓰기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구체적인 텍스트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국어과 교육과정』.
- 국어교육연구소 편(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사.
-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교육”, 『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문영진(2000), 『한국 근대산문의 읽기와 글쓰기』, 소명출판.
- 박영목·한철우·윤희원(1999),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 박태호(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 학습 원리 연구”, 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염은열(1999),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이형빈(1999), “고백적 글쓰기의 표현방식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 정정순(2000), “장르 개념을 활용한 쓰기 교육”, 이상익교수정년퇴임 기념논문집.
- 차배근, 『설득커뮤니케이션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최인자(2000), “장르적 시각에서 본 글쓰기 교육”, 『국어표현·이해교육』, 집문당.
- 최인자(2000), “장르의 역동성과 쓰기 교육의 방향성”, 『문학교육학』 제5호.
- Bill Cope and Mary Kalantzis ed(1993), *The Powers of Literacy : A Genre Approach to Teaching Writing*, The Falmer Press.
- Winston L. Brembeck, William S. Howell(1976), *Persuasion: A Means of Social Influence(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초록>

설득을 위한 글쓰기의 전략

- 이규태의 글쓰기를 한 사례로

정 정 순

현행 쓰기 교육에서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전략 중심의 쓰기 지도 모형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어 실제적인 학생들의 쓰기 지도 장면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 모든 글쓰기를 포괄하는 전략이 아닌, 각각의 목적에 맞는 글쓰기의 전략이 개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규태의 칼럼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설득을 위한 글쓰기의 전략을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의 칼럼은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끝까지 읽게 하기와 울림을 극대화하기가 그것이다. 그는 독자로 하여금 그의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기 위해 동서고금의 일화를 활용하며, 동시에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일 마지막에 위치시킨다. 또한 독자의 정서적 울림에 호소하기 위해 다양한 일화를 제시하는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생략하며, 자신의 의도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러한 이규태의 글쓰기 전략은 설득을 위한 글쓰기의 구체적인 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쓰기 교육, 설득을 위한 글쓰기, 전략

<Abstract>

Writing strategies for persuasion

Jung, Jung-Soon

Strategies in the present writing education are focused on a problem-solving process and thus are too general and equivocal to be employed in a real wri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new writing strategies which can be applied to each writing purpose. Given the problem, in this study it was attempted to elicit the writing strategies for persuasion from analysis of columns by Lee Gyu-Tae.

Analysis of his column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wo major strategies are dominant, i.e. having readers readthrough his columns and having them touched to the utmost.

He puts a key sentence in the end of his column as well as cites plenty of episodes across the ages and the countries of the world in order to prevent readers being distracted. Moreover, he avoids a direct explanation and mentions a message indirectly to maximize emotional effect. These strategies appear to be applied to the writing strategies for persuasion as well.

[Key words] writing education, writing for persuasion, strategies